

## 급변하는 사업환경 적극적 대응필요



무자(戊子)년 쥐띠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영환경이 어려우시더라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대처하시어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은 전국의 회원여러분들이 협회에 크나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결과 그 어느 해 보다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07.7월,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LPG는 인하함으로써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가 100:85:50으로 조정되어 제2차 에너지세계개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 LPG(부탄)가 미흡하나마 타 연료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국내 부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협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경차에 대한 LPG연료허용

건도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 입법예고 됨으로써 일반인들도 LPG경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LPG업계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LPG자동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자동차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LNG·CNG택시의 출현 가능성과 함께 천연가스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LPG 수입사·환경협회 등 우리 LPG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카렌스, 카니발 외에 생산되지 않고 있는 LPG차량 문제, 차단기능형밸브 부착 의무화 등 많은 현안 과제들이 우리 업계를 위협하고 있어 더욱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협회는 용기관리개선과 용기상호표시개선 등 프로판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LPG차량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자동차사에 건의, 경차확대방안, LPG세미나 개최, 한·중·일 LPG업계 교류 등 우리업계의 부흥·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업환경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08년도 역시 협회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사업의 일일 번창하심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1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유수륜